

服飾史研究方法에 관한 小考(Ⅱ)

A Study on the Methods of Inquiry in the History of Costume

中央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副教授 申 尙 玉

Dept. of Home Economics, Chung 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Sang Ok Shin

| | |
|---------|----------|
| <目 次> | |
| I. 緒 論 | III. 結 論 |
| II. 研究方 |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method and to provide a guide to the ways in which researcher, interested in costume history, can obtain information.

There are comparison, induction, observation, analysis, experience and synthesis in method of science.

Firstly, comparative research is to ascertain the accumulated evidence. (primary sources and secondary sources)

Secondly, we can compare with historical phenomenon.

A research intend to verify the hypothesis based upon the sources of information.

It is an available method to investigate the costumes and adornments in the past.

Whatever the approach, the researcher must discribe the facts objectively.

Historical research has been approached in many ways in the field of costume.

We can use the evidence provided by changing styles of dress in the past to design modern dress.

There are visual and documentary sources.

Visual sources are paintings, sculpture, frescoes, coins, potteries, medals, mosaics, wall paintings, stained glasses, seals, tapestries, illustrations, photographs, movies, and fashion dolls.

Documentary sources are archives, letters, diaries, literature, wardrobe accounts, sumptuary laws, newspapers, and recollections.

I. 緒 論

우리나라에서 服飾史를 研究하기 위한 方法上의 問題는 지금까지 여러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韓國服飾史는 최근 10년 동안에 服飾研究者와 發表된 論文의 數가 많아지고 內容에 있어서도 服飾의 時代別, 品目別로 철저한 研究가 進行되어 服飾의 基本 類型이나 변천등에 관한 새로운 理論의 定立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西洋服飾史나 東洋服飾史에 있어서도 服飾의 形態와 變遷과정, 時代別 특색에 관하여 內容개발이 많이 되었고 服飾의 變遷요인과 사회적요인의 상호영향에 관한 접근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服飾史研究의 영역이 확대되고 研究結果의 量的 膨창에 수반되는 方法論의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服飾史分野의 研究에서 아직 外國文獻을 번역 정리 요약한 것이 있으며 資料수집에서 原史料를 해독할 수 없는 경우에 앞사람의 研究成果를 그대로 인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科學的인 研究方法에 대한 혼란의 미숙이나 研究者의 基本態度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服飾史 分野에서 새로운 사실의 發見이나 기존이론의 修正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科學的인 研究方法의 開發이 요청되므로 筆者는 服飾史研究方法에 관한 小考 I¹⁾에 이어서 社會科學, 人文科學, 歷史學分野에서 開發되어 있는 研究方法를 응용하여 服飾史 研究方法를 모색하였다.

史家의 기본적 태도는 現場調査나 實物관찰을 할 때 科學的인 思考方式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研究資料는 原史料를 최우선으로 구하고 되도록 많은 資料를 장시간에 걸쳐 수집하고 高증을 하거나 結論을 내릴때는 선입견, 편견이 없이 냉정하고 客觀的인 科學的 方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

服飾史를 研究하는 사람은 이러한 基本자세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眞理를 탐구하기 위한 學問의 科學的인 研究方法에는 일반적으로 觀察(observation), 歸納(Induction), 比較(comparison), 分析(analysis), 實驗(Experience), 綜合(Synthesis)등이 있으며 史學에서 精確한 結論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眞實(fact)과 蓋然(Probability)을 확립하여 過去의 眞理를 탐구하고 眞實과 蓋然의 증거를 비판 확정하여 관계된 증거를 하나씩 比較하고 原因을 分析한다고 하였는데 史學에서의 이러한 方法을 服飾史에서도 부분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本稿의 服飾史研究方法에 관한 內容은 科學的인 方法中에서 比較法·歸納法·觀察法·歷史的 研究方法이다 服飾史의 事例를 적용시켜 설명하였고 研究資料와 活用에서는 主로 西洋服飾史의 研究資料를 時代別로 조사하여 表를 만들었고 資料의 活用 方法은 몇가지 資料에 국한시켰다.

研究의 限界點은 服飾史란 제목에 부합되지 않게 西洋服飾史내용을 편증되게 많이 다룬 점이며 東西洋에 걸쳐 광범위하게 分布되어 있는 研究資料를 가지고 服飾變遷의 要因과 原理를 研究하고 文化환경과 더불어 歷史發展의 主體가 되는 人間의 형질적 특색을 탐구함에 있어서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分野의 研究方法의 응용이 아닌 衣類學 고유의 研究方法를 創案하지 못한 점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資料와 資料의 活用

研究資料는 實物資料, 視覺資料, 文獻資料로 나눌 수 있다.

1) 實物資料

服飾史研究에서 實物資料는 제일 중요한 직접자료로서 박물관소장품, 개인소장품, 出土品등의 衣服, 장식품을 모두 포함한다.

衣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色이 바래고 섬유나 재질이 손상되고 調査, 陳列, 촬영할때 마다 破損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文化재관리국 보존관리과에서 전국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원상복원과 보존에

1) 대한가정학회지, 18권 4호, 1980, 12.

2) 歷史學研究方法論, p. 7.

科學인 方法을 活用하고 있으나 衣類分野는 아직 科學인 方法을 積極적으로 施行지 못하고 있다.

衣服의 입은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마네킹에 衣服을 입히고 머를 매거나 하면 섬유의 損傷이 급속히 일어나므로 진열품은 고중에 의한 模造品을 만들어서 대체시키는 것이 安全하며 가능하면 實物資料가 전혀 없는 時代의 것도 여러 方法으로 考證을 하여 復元한 服飾品을 時代順으로 진열하는 것이 服飾研究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³⁾.

西洋의 實物資料는 비잔틴의 織物조각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中世紀의 기사가 입었던 갑옷종류가 實物로 保存되어 있으며 衣服은 16世紀 이후의 것부터 남아 있어서 유럽 각 나라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미국은 뉴욕의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Y.) 부르크린 박물관(Brooklyn Museum), 영국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에 많은 服飾資料가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경복궁 민속박물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창덕궁과 각 대학의 박물관에 衣類와 宮中遺物, 부속품이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衣類소장품 내용의 특색에 관하여는 衣類學의 教授方法에 있어서 博物館의 活用方案에서 언급하였다⁴⁾.

2) 視覺資料

視覺資料는 服飾品의 實物과 文獻資料를 제외한 모든 資料가 여기에 속한다.

회화, 벽화, 조각, 도자기의 그림, 관화, 만화, 메달, 화폐, 패션인형, 印章, 타피스트리, 자수, 직물, 사진, 영화등 服飾研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端緒가 있는 것은 資料가 된다.

다음은 西洋服飾史에서 研究資料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史料로 작성한 것이다.

表에 기재된 것중에서 회화, 조각, 벽화, 패션인형, 타피스트리, 자수, 직물에 관해서는 服飾史 研究方法에 관한 小考 I 과 朱明姬의 논문^{5, 6)}에서 다

루었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資料중에서 몇가지를 뽑아 다루려고 한다.

· 陶器의 그림

保存이 가능한 것이므로 西洋은 크리트, 그리스 로마의 陶器가 현재 남아 있어서 古代服飾研究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스의 도기항아리 그림에는 키튼, 히메이션, 클레미스를 입고 있는 人物이 가늘고 선명한 線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 도자기항아리나 그림에 그려진 그림이 서양에서는 人物묘사를 극대화시키는 기법에 비하여 自然을 배경으로 하여 人物을 작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衣服이나 머리모양의 세부적인 것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印章, 메달, 동전, 화폐

古文書에는⁷⁾ 各種의 印章이 찍혀 있는데 中世 印章의 모양은 대부분 圓形이고 그 內容은 가운데에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고 가장자리 둘레에 文字를 새겼으므로 가운데 사람이 입고 있는 衣服과 모자의 모양이 참고자료가 된다.

皇帝, 國王, 僧侶, 봉건귀족들이 사용하던 印章에는 새모양이나 짐승모양, 기하학적인 모양이 도안된 紋章이 새겨져 있으므로 紋樣研究에도 도움이 되며 印章의 字體, 文字, 格式, 材料, 刻工, 印色 등을 가지고 古文書의 眞僞를 가릴 수 있으므로 資料의 고증에도 이용할 수 있다.

파리대학의 卒業證書에 찍혀있는 印章의 人物이 입고 있는 衣服을 가지고 13世紀 大學의 學士, 碩士, 博士의 服飾을 研究한 例가 있다⁸⁾.

동전이나 메달에 새겨져 있는 人物의 묘사는 크기가 매우 작고 대부분 프로필이나 상반신의 앞모양이므로 헤어스타일, 모자, 목둘레 장식물에 관한 資料를 얻을 수 있다.

화폐의 경우 화폐에 그려져 있는 肖像이나 文字 도안을 보고 당시의 服飾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화폐는 그의성이 없는 史料이므로 文化的인 측면에서 당시의 美術이나 宗教的

7) 古文書—과거에 속하는 文書로 各種의 公文, 證書, 證明書를 뜻함.

8) 鄭雲子 學立服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4. 6. 9.

3)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第一回學術세미나인쇄물, p. 9.

4) 中央大 부설, 韓國教育問題研究所 論文集, 創刊號, 1984, p. 123.

5) 대한가정학회지, 18권 4호, 1980. 12.

6) 朱明姬 西洋服飾史 研究의 端緒가 되는 內容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석사논문, 1983. 11.

西洋服飾史 研究資料

| 時 代 別 | 研 究 資 料 |
|-------------------|---|
| 古代이집트 | 무덤, 彫像, 벽화, 미이라의 관, 파피루스 筆寫, 채색된 象形文字 |
| 메소포타미아 | 粘土版, 벽화, 조각(궁전, 절, 기념碑), 항아리, 성경, 古기록, 印章(원통형) 활자. 박물관 소장품(Assurbanipal 도서관, Alexandria 도서관) 기념물, 유물, 유적 |
| 그리스 | 후레스코화, 기념물, 문학작품, 陶器항아리, 그림, 메달 |
| 로 마 | 후레스코화, 초상, 조각, 항아리 그림, 메달, 모자이크, 石棺, 발굴유적 |
| 비잔틴 | 모자이크, 石棺, 후레스코화, 필사본, 예수聖像, 인물상아조각물, 기록물, 직물조각. |
| 5세기—10세기 | 編年史, 기록물, 조각물, Coin, 발굴품, 후레스코화, 패넬화 |
| 11세기—13세기 | 모자이크, 스테인드글라스(교회창문), 후레스코화, 교회기록물, 나무彫像, 도자기그림, Bayeux tapestry, 필사본, 메달, 직물, 의복, 패넬화. |
| 14세기—15세기 탐험기록 | 후레스코화, 회화, 모자이크(교회창문), 彫像, 구리기념물, 문학작품, Fashion doll, 印章, Flemish & Burgundian tapestry, 사치단속령(sumpluary laws), 직물, 자수. |
| 16세기 | 회화(초상화), 조각물, 문학작품, 고문서(英國), 바렌의 그림, 자수, 직물, 의복, Fashion doll, 장부, 여행자의 스케치. |
| 17세기 | 회화(초상화), 조각물, 문학작품, 고문서(英國), 바렌의 그림, 지수, 직물, 의복, Fashion doll, 장부, 여행자의 스케치, 레이커 교도복장, 청교도복장. |
| 18세기 | Watteau 회화, 조각물, Coin, 메달, 문학작품(소설), 홀바인, 반다이크, 풍자만화. |
| 19세기 | Fashion plate, 사진, 의복, 편지, 신문, 패션잡지, 일기, 회고록, 소설, 풍자만화. |
| 20세기 | 패션잡지, 영화, 사진, 신문. |

인 관념의 表現 등 時代精神을 研究하는데 도움이 된다.

3) 文獻資料

文獻資料가 되는 것은 古文書, 文學作品, 回顧錄, 日記, 便紙, 人物誌, 장부, 계약서, 잡지, 여행견문록, 사치단속령, 신문등이 있다.

특히 東洋服飾史研究資料를 집대성한 것으로 韓國服飾史資料選集은⁹⁾ 우리나라 上古時代부터 朝鮮時代까지 王朝實錄과 法典, 史書, 類書, 文集類를

망라하여 服飾에 관련된 原文과 해석을 수록하였고 中國과 日本의 文獻을 수록하여 研究者에게 중요한 資料가 되고 있다.

衣服實物이나 視覺資料가 남아있지 않은 時代의 服飾을 研究하는데는 文獻이 直接的인 資料를 제공해 준다.

古文書의 活用에 관해서는 先行研究가 있으므로¹⁰⁾ 나머지 資料中 몇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古代로 갈수록 文獻에 의존하게 되는데 가장 오

10) 朱明姬, 西洋服飾史研究의 端緒가 되는 內容에 관한 연구, 建大大學院, pp.29~33.

9) 金英淑, 孫敬子, 共編著, 敎文社.

래된 것으로 口頭傳說을 들 수 있다. 그 例로 호머(Homer)의 長篇敘事詩 일리아드 오딧세이(Illiad & Odyssey)는 B·C 9세기경 古代 그리스인들의 戰爭과 모험과 日常生活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중에 王妃가 羊毛로 실을 만들고 織物을 짜면서 冒險의 여행을 떠난 王의 귀환을 기다리는 내용이나 王의 紫色맨틀(Mantle), 二重冠, 흰색 속옷의 표현은 다른 資料들과 비교할때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中世는 교회와 기록물이나 수도원에 保存된 文獻이 좋은 資料가 된다.

14세기 초서(Chaucer)의 作品 캔터베리 이야기의 序文에는 各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순례자들의 衣服묘사가 되어 있고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衣服에 관한 문헌을 찾아볼 수 있고, 18세기 이후에는 소설에서도 당대 인물들의 衣生活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詩, 소설, 희곡등 文學作品은 虛構에 속하는 것이므로 事實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作家가 作品을 상상력과 창작력으로 꾸미더라도 무의식중에 그 당시의 社會배경을 쓰게 되므로 참고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作家 당대의 것을 소재로 쓸 수도 있고 作家의 연대보다 훨씬 이전의 과거를 그릴 수도 있으므로 作品內容의 時差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日記나 便紙는 原史料라고 하는데 歷史學에서는 막역한 사이의 친구에게 보낸 개인편지나 개인이 매일 쓴 日記는 위조할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크다고 하였다¹¹⁾.

服飾에 관련된 사치단속령은 西洋의 경우 B·C 7世紀 그리스에서 女性들이 한번에 옷을 세벌이상 입지 못하도록 하는 禁令에서 부터 시작하여 13세기 이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와같이 服飾을 규제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服飾이 그 時代에 입혀졌다는 反證이 되므로 服飾史研究에서 資料로 이용한다.

韓國服飾史에서 統一新羅時代는 資料가 귀한 時期에 속하는데 興德王 9년에 내린 服飾禁制를 보고, 身分階級에 따른 20여가지의 服飾에 대한 着

用規定을 미루어 新羅服飾의 일면을 알 수가 있다.

2. 研究方法

現在 自然科學分野의 研究는 定立된 研究方法에 의해서 놀라운 發展을 보이고 있으며 社會科學 역시 資料蒐集 方法이나 資料의 分析에서 計量分析에 의한 研究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研究方法이 科學의이 아닐 경우 學問的인 오류가 생기기 쉽고 研究方法에 따라서 成果가 크게 좌우되므로 研究者는 신중하게 研究方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研究란 그 分野의 學者들에 의해 現在 받아들여지고 있는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知識을 낳게하는 活動이라」¹²⁾는 用語의 定義에서 볼때 衣類學의 服飾史分野에 있어서는 科學的인 研究方法이 現在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 事實의 發見이나 解釋, 새로운 事實에 의한 기존 이론의 修正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科學的인 方法은 現實世界의 現象을 관찰하여 歸納的過程에 의해 現象설명을 簡明化시켜 事實間의 關係를 說明하고 演繹的 과정에 의해 現實世界에 관한 豫測을 하고 體系的이고 統制된 관찰에 의해 이들 豫測을 檢證하는 것으로 科學的 方法은 歸納演繹 檢證이라는 순환적인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¹³⁾.

科學的 方法의 최종단계는 演繹的 추론에서 유도된 예측이 現實世界에서 支持내지는 立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예측이 調查結果에 의해 立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假說檢證이 科學的 研究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하였다¹⁴⁾.

科學的 方法에서는 觀察, 實驗, 歸納, 比較, 分析, 給合등의 方法을 거쳐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科學的인 實驗法에서는 上古時代 遺物의 年代를 측정하거나 史料의 眞僞를 밝힐때 放射線炭素年代測定法을 적용시킬 수 있으나 歷史나 服飾史研究

12) 金南炫譯, 研究方法論, p. 16.

13) 상계서, p. 11.

14) 상계서, p. 14.

15) 杜維運著, 권중달역,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p. 50.

11) 杜維運,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p. 149.

에서 科學的 方法의 應用에는 限界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歷史的 事實을 놓고 歸納法이나 세밀한 分析, 精確한 比較를 하여 얻은 結論이라도 研究者의 思想이나 態度 과거의 經驗이 다르면 所見도 달라지므로 科學者처럼 精確하고 절대적인 結論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眞實에 가까운 結論을 얻을 수 있는 史學分野의 研究方法에는 比較法, 歸納法, 觀察法, 歷史的 研究方法 등이 있다.

1) 比較法

比較法은 研究對象의 特性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總체적 접근에서 差異點과 共通點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比較方法에는 現時的 比較와 時差的 比較, 內容的 比較와 形態的 比較가 있다.

文化人類學에서는 現在와 過去의 比較보다 內容的 比較와 形態的 比較를 더 중요시 하는데 內容的 比較는 文化要素에 重點을 두어 比較하는 것으로 하나의 特定한 慣習, 制度 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시 하거나 하나의 慣習이나 制度가 文化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研究하는데도 필요하다¹⁶⁾.

歷史研究法에서의 比較法은 史料比較와 歷史現象 比較 두가지로 나뉘는데 史料에는 虛僞나 誤謬가 있으므로 歷史家는 史料를 엄격하게 考證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服飾史의 文獻資料가 되는 古文書, 史記, 法典, 實錄, 文集類 등에 있어서 原典이 아닐 경우에 誤字 脫字 脫文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史料는 原本이 아니면 여러개의 板本을 比較하여 史料의 內容이 眞實인가 밝혀야 한다.

外書を 참고로 服飾史를 研究할 때 저자마다 衣服의 이름이 다르고 歷史現象의 해석이 다른 경우를 發見할 수 있는데 가능한 많은 外書を 가지고 서로 比較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른 研究方法인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우리服飾에 관한 內容은 당대의 우리나라 文獻과 比較하여서 外國人의 편견

이나 잘못 기술한 것이 있는가 양쪽의 史料를 같이 놓고 比較해 보아야 한다.

歷史現象比較에 있어서 服飾史에서는 東洋服飾文化와 西洋服飾文化를 比較할 수도 있고 國家間에 服飾文化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찾아보면 의미 있는 發見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古代小亞細亞 여러 民族들의 服飾형태, 文樣등을 比較研究한다면 衣服의 基本類型의 原流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例로 17世紀의 衣服, 家具, 織物文樣, 建築을 文化要素에 重點을 두고 유사성을 比較한다면 衣服이나 家具의 構造의 特性을 밝힐 수가 있고 結果的으로 文化의 發展의 전개를 시야를 넓혀서 파악할 수가 있다.

時差的 比較의 例로는 13世紀 고딕스타일시대의 女性服의 실루엣과 19世紀 낭만주의 스타일시대 女性服의 실루엣을 比較하는 경우에 各時代의 文化的 배경을 알기 위해 建築과 美術의 樣式, 美意識 등을 각각 고찰하여 문화적배경과 服飾과의 關係를 탐색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國家間的 服飾文化를 比較研究하는 것은 다른 民族文化를 이해함으로써 研究者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피차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자기나라 古有的 것이라고 고집하였던 것의 原流가 다른 나라에 있었음을 發見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史料의 比較나 歷史現象의 比較를 할 때 分析方法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文化的인 要素, 經濟的인 要素, 民族的인 要素에 대하여 세밀하게 分析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結果를 얻을 수 있으며 比較만하고 分析하지 않으면 의의가 없으므로 반드시 먼저 比較하고 뒤에 分析하여야 比較法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⁸⁾.

2) 歸納法

歷史學에서 歸納法은 먼저 史料를 많이 수집한 후에 여기서 結論을 찾아내는 方法이다.

歷史研究에 歸納法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史料를 수집하는 年한이 길수록, 史料는 原資料일수록, 結論은 慎重할수록 좋고 結論은 證據가 꼭 必要하며

16) 李光奎, 文化人類學概論, 一潮閣, 1984.

17) 杜維運, 권중달역,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18) 상계서, p.127.

證據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다¹⁹⁾. 歸納法은 어떤 假說을 세워놓고 假說에 부합되는 事實을 찾아내는 演繹法과 반대인것 같으나 실제로는 두 방법이 상호보완 해주는 것으로 歸納法에서도 研究者는 어떤 문제나 假說을 마음속에 갖고 있음으로 해서 특정한 資料에 흥미를 갖고 그 資料를 수집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⁰⁾.

따라서 歸納的 方法에서도 먼저 假說을 세워야 하는데 假說을 세울 수 있으려면 研究者는 풍부한 想像力과 既成觀念과 해박한 知識을 두루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²¹⁾.

例로써 西洋服飾史에서 크리트服飾이 당대의 지중해지역 다른 나라服飾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크리트服飾만 뚜렷하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歸納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資料의 수집이 첫번째 과제가 된다.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전설적인 歷史事實에서 부터 크리트의 기후, 풍토, 무역관계, 크리트人의 氣質, 크노스스 迷宮의 벽화내용, 발골품, 크리트가 다른 나라와 교역한 수출품의 추적에 이르기 까지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例로 18世紀에 루소(Rousseau), 로크(Locke), 볼테르(Voltaire), 몽테스큐(Montesque)와 같은 思想家들이 18世紀 衣裳패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研究를 할때 思想家들이 大衆의 意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假說을 세우고 資料를 수집하여 檢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觀察法

服飾史研究에서 제일 理想的인 方法은 實物을 觀察하는 것이다.

實物 그 자체가 정확한 考證物이므로 잘 保存된 服飾品은 史料의 價値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實物調査는 具體的인 실제의 정보를 구할 수 있고 基礎資料를 얻을 수가 있다.

實物을 調査하기 전에 調査者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調査하려는 것에 대한 事前知識이 있어야 하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調査에 임하는 것이다.

調査한 內容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觀察한 것을

바르게 묘사해야 價値가 있다. 박물관의 服飾진열품의 觀察에서 유리장속에 있는 服飾品을 꺼내서 가까이 볼 수 없다면 服飾品의 뒷면이나 안을 볼 수 없어서 觀察의 효과가 半減되는 수가 있다.

地下에 묻혀 있었던 服飾品은 부식되었을 경우 원래의 形態나 색채, 재질을 파악하기란 容易치 못한 것이며 衣服의 색은 겉보다 안쪽의 솔기를 보는 것이 좀더 사실에 가깝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衣服의 치수를 재는데 있어서도 그 보존상태를 감안하여 세탁이 가능하다면 이를 세탁하고 건조시킨후 정확하게 計測하여 오차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出土된 服飾의 입은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實物과 같은 年代의 회화 자료를 참고로 하고 文獻資料에서 織物에 관한 것을 보완 해 줄 必要가 있다.

實物觀察이나 現場調査가 직접적이고 具體的인 基礎資料를 제공해 주는 좋은 점이 있으나 現場調査나 實物觀察은 事例研究이므로 代表性에 제약을 받고 一般化 시킬 수 없는 弱點이 있다. 또한 調査者의 主觀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調査內容의 考證이나 解釋에서 편파적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調査者는 증거수집이나 調査를 할때 科學의 精神을 갖고 資料를 鑑定하여 眞偽를 밝히고 올바르게 論證을 해야 한다. 같은 實物資料를 놓고 얻은 結論이 調査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例가 있다.

主觀이 개입된 結論은 後에 새로운 증거에 의해 修正될 수 있으며 修正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도 調査者는 인식하고 있을 必要가 있다.

4) 歷史的 研究方法

이 方法은 過去를 客觀的이고 正確하게 再現하기 위해서 하는 研究로 服飾史研究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活用해온 方法이다.

또한 이 方法은 時差에 따른 服飾類型的 變化過程을 고찰하여 미래의 類型을 예측하기 위해 행하여 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出土服飾을 衣類別, 時代別로 번친을 고찰하여 變化過程을 밝히는 研究나 衣服을 品目別로 나누어 女子 저고리, 男子의 袍등을 형태, 치수, 봉재 상태로 구분하여 變化의 要因등을 찾

19) 상계서 p.59~60.

20) 상계서 p.72.

21) 상계서 p.74.

아내는 예를 들 수가 있다.

西洋服飾史에서는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 까지 女子속옷의 변천을 時代的 배경과 관련시켜 속옷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男子바지의 發生에서 부터 現代 男子바지가 되기까지의 變化도 歷史的 方法에 의해 研究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Ⅲ. 結 論

服飾史의 研究對象은 人間이 진 歷史를 통하여 創案해 내고 發展시킨 服飾에 관계되는 것 일체를 다룬다.

服飾은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文化的배경, 人間의 慾求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적인 文化價値를 지니므로 多面的인 研究와 科學的인 研究方法를 적용할 必要가 있다.

現在 韓國服飾史, 東洋服飾史, 西洋服飾史에 관한 研究가 최근 10년 동안에 매우 활발하게 進行되어서 發展의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研究의 方向을 좀더 最善의 것으로 잡아 나가고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研究方法의 개발이 요청된다

앞사람이 이미 선택했던 主題를 중복해서 다루더라도 새로운 事實을 찾아내거나 理論을 세우지 못한다면 研究의 의의가 없으므로 研究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資料를 많이 수집하여 假說을 檢證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假說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假說을 개발하려면 服飾史에 관련된 인접학문에 관한 知識과 상상력이 풍부해야 하고 學問의 수련을 쌓지 않고는 不可能한 일이므로 研究者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놓여있다.

研究方法이 적절하고 정확해야 研究의 成果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科學的 方法에 속하는 比較法, 歸納法, 觀察法, 歷史的 研究方法를 服飾史에 적용시켜 보았다.

比較法에서는 먼저 資料를 比較하는데 原文과 板本, 국내자료와 외국자료, 實物資料와 文獻資料등을 比較하여 虛僞나 誤謬가 있나 가려내고 歷史現象을 比較할때는 文化的인 要素, 心理的인 要素로 세밀하게 分析해 나가야 진정한 比較研究가 될 수 있다.

歸納的 方法을 服飾史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定立되어 있는 既成의 觀念을 기초로 하여 研究者가 흥미를 갖고 있는 問題나 假說을 떠올리며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資料들을 모아서 分析하고 檢證하여 새로운 理論이나 結論을 얻게 되는 것이다.

觀察法은 實物觀察이나 現場調査를 하기전에 事前知識을 갖추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調査에 임해야 하며 遺物을 實測할 때는 치수에 誤差를 줄이도록 정확을 기해야하고 觀察한 것은 客觀的으로 바르게 묘사해야 한다.

歷史的 研究方法은 服飾史 研究에서 지금까지 많이 행하여온 方法으로 過去服飾形態의 변천과정을 研究하여 現代服飾에 部分的으로 再現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研究者가 先行研究의 成果들을 綜合하여 자신의 새로운 研究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科學的인 研究方法에 의해서 진부한 것도 새롭게 조명하여 學問的으로 創造的인 과업을 이룰 수가 있다

研究에 先行되어야 하는 資料收集과정에서 原史料를 이용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言語學과 文字學의 知識이 있어야 하는 점이다.

研究와 관계있는 外國의 言語와 文字에 능통해야 자신이 직접 史料를 해석하고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英語, 佛語, 獨語, 日語, 中國語등의 言語와 文字에 통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歷史學者의 경우 唐代史研究를 위해서는 터어키 아랍어, 西藏語를 알아야 하고 元史研究를 하려면 페르시아어, 아랍어, 蒙古語, 라틴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現代外國語에 능통한 것은 물론 15세기 이전의 유행의 文化를 이해하기 위해서 古文字에도 조예가 깊어야 古文書를 취급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服飾史에서도 言語學이나 文字學을 研究의 도구로 삼아야 함은 물론 그 밖의 인접학문 내지 補助科學의 도움을 받아야 合理的인 해석이나 結論에 도달할 수가 있다.

넓은 의미의 補助科學에는 政治學, 社會學, 經濟學, 心理學, 社會科學, 人文科學, 考文學, 文化史, 美術史, 哲學등이 있으며 이들 學問의 研究結果를 여러 측면에서 服飾史研究에 活用할 수가

있다.

앞으로 服飾史의 研究方向은 現代人이 좀더 幸福해 지는데 기여하기 위한 家政學 내지는 衣類學의 한 영역으로서 現代人의 衣生活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의의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杜維運著, 權重達譯,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1984.
2.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博英社, 1982.
3. Eugene F. Stone, 金南炫譯, 研究方法論. 經文社, 1983.
4. 李光奎, 文化人類學概論. 一潮閣, 1984.
5. 鄭駱謨, 文獻情報學原論.
6. Ernest h. Sohsky, Patrick Culbert 著. 李文雄譯, 人類學概論. 一志社.
7.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文化出版局, 1983
8.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1982.
9.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10. 家政學研究의 最新情報 Ⅱ. 衣類學. 新光出版社, 1984.
11.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敎文社
12. 朝鮮時代宮中服飾.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3. 鄭興淑, 服飾文化史. 敎文社, 1981.
14. 申尙玉, 西洋服飾史. 修學社, 1981.
15. Janet Arnold, *A Handbook of costume.* Mcmillian.
16. Lavina M. Franck, *History of costume A study Guide.* Burgess Publishing Co.